

#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5월 29일  
제1898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례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루카 24, 48-51)



〈그리스도의 승천〉, 지오토 디 본도네

##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다해)

**제 1 독서** 사도 1,1-11 |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화답송** 시편 47(46)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제 2 독서** 에페 1,17-23 <또는 히브 9,24-28; 10,19-23>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하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 루카 24,46-53 |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다.

##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sup>46</sup>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sup>47</sup>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sup>48</sup>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sup>49</sup>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sup>50</sup>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sup>51</sup>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sup>52</sup>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sup>53</sup>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 주님 승천 감사송 승천의 신비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영광의 임금이신 주 예수님께서서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로서,  
(오늘) 천사들이 우러러보는 가운데,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으며,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 세상의 심판자,  
하늘과 땅의 주님이 되셨나이다.  
저희 머리요 으뜸으로 앞서가심은,  
비천한 인간의 신분을 떠나시려 함이 아니라,  
당신 지체인 저희도 희망을 안고 뒤따르게 하심이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 복음 묵상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다시 하느님 품으로 가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그런데 ‘승천’, 곧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리적으로 이 땅을 떠나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떠나 저 먼 곳으로 가셨을까요?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라고 말씀하셨으니, 떠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와 머물며 함께 사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맥락에서 주님께서 오르셨다는 그 ‘하늘’과 그분의 ‘승천’은 우리를 떠나 저 멀고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욱더 하나가 되시고자 이 세상 깊은 곳으로 내려오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의 승천 사건을 복음서보다 더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전합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하늘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라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그 하늘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이라고 알려 주는 것만 같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승천은 이제 물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이 지상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 안에서 찾고 발견하라는 초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예수님께서 지상 생활에서 보여 주셨던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의 손과 발로 이 세상에서 구현해 내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세상 안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 안으로 깊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찬미하며,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분께서 몸소 보여 주신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지니고 세상 속으로 승천합시다.

<박문수 막시미노 신부>

## 마음의 귀로 경청하기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지난해 ‘와서 보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 데 이어, 올해는 소통과 대화에 필요한 ‘경청’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어라”라는 말씀이 되풀이되고, 신약에서 바오로 사도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듣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응답을 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고 말씀하시며, 단지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구에게 듣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듣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청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른 이에게 귀 기울이지 않아 내적으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청은 귀를 통해 겉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 경청하여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경청은 대화와 소통에서 꼭 필요합니다. 좋은 소통은 사람을 직접 만나 공정하고 당당하며 정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는 경청입니다. 그러나 옛듣기와 같은 나쁜 경청도 있습니다. 오늘날 소셜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옛듣고 엮담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이를 이용하려는 유혹이 더욱 생겨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서로 자기 말만 하고 경청을 잘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소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청이 어려운 까닭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많은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에게서 배운다는 생각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또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상처 입은 이 시기에 사회의 소리를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불신이 쌓여 만들어진 ‘가짜 정보의 유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경청이 필요합니다.**

**사목 활동에서도 말하기에 앞서**

**‘듣는 귀의 사도직’은 중요합니다.**

**형제자매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께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는 것은 애덕의 행위입니다.**

합창단은 다른 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각각의 목소리가 함께 어울려 노래합니다. 우리도 저마다 지닌 목소리로 노래하면서 다른 이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회의 친교에 참여합니다.

시노드 여정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경청하는 큰 기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실제로 친교는 전략과 프로그램의 결과가 아니라 형제자매들 사이의 상호 경청으로 이룩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있었고 우리도 함께 이루는 친교에 참여한다는 인식을 통하여 우리는 어우러지는 교회를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 안에서 모든 이는 다른 이들이 내는 목소리를 성령께서 작곡하시는 전체 화성을 드러내는 선물로서 환영하며 저마다 지닌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1 2차 헌금 Catholic Communication Campaign**

- 홍보주일을 맞아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신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병자 영성체**

- 일시 : 6월 3일(금)
- 신청 : 6월 1일(수)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사제 서품식**

- 일시 : 6월 4일(토) 오전 11시 성 토마스모어 성당
- 8명의 부제님들이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www.arlingtondiocese.org/Events/2022/Priesthood-Ordinations-2022/>

**4 파티마 세계 사도직 첫 토요일 신심 기도 및 미사**

- 일시 : 6월 4일(토) 오전 10:30 (첫 토요일 신심 미사)
- 파티마 사도직 기도회는 오전 9시에 있습니다.
- 토요일 신심 미사로 토요일 새벽 미사는 없습니다.

**5 구역 봉사자 회의**

- 일시 : 6월 5일(일) 오전 11:30 (B-3,4)

**6 유아 세례**

- 일시 : 6월 11일(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혼인 갱신식**

- 일시 : 6월 12일(일) 10시 미사 중
- 대상 : 25, 30, 40, 50, 60년
- 접수 :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신청 마감 : 5월 29일(일)까지
- 문의 : 김영술(아놀드), 레지나 부부 (703) 477-2435

**8 2022 CYO WorkCamp Contractor 봉사자 모집**

- 봉사 기간 : 6월 19일(일) - 6월 24일(금)
- 알링턴 교구 WorkCamp에 함께 봉사할 컨트랙터를 구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권용우 스테파노 (571)244-0333  
사무실 (703) 968-3010

**9 성령 기도회 모임**

-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미사 후 (도서실)

**Memorial Day**

5월 마지막주 월요일인 5월 30일은 Memorial Day입니다.  
자유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모의 밤 행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  
안내자이신 그리스도**



(바오로딸 콘텐츠)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우리의 이 여정과 관련해 깊은 위안을 주시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참하느님이며 참사람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몸을 묶고 산을 오르는 안내자와 같습니다. 정상에 다다르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끌어올려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그리스도께 의탁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안전한 손에 - 우리의 구세주이자 중재자인 그분의 손에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하는 매일 묵상〉

**부부의 기도**

-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혼인성사로 저희를 맺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하옵니다.
- 이제 저희가 혼인 서약을 되새기며 청하오니  
저희 부부가 그 서약을 따라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잘살 때나 못살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게 하소서.
- 또 청하오니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는 저희 부부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5월 22일(부활 제6주일)

주일 헌금	\$ 6,406.00
교무금	\$ 4,340.00
교무금(신용카드)	\$ 1,340.00
2차 헌금	\$ 3,240.00
감사 헌금	\$ 500.00
온라인 봉헌	\$ 1,300.00
합계	\$ 17,12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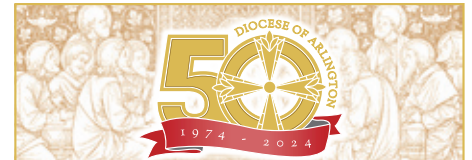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보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 6월 2일(목) 오후 5:00-6:00
- 6월 3일(금) 저녁 8:00-9:00
- 6월 5일(일) 오전 6:00-7:00

1. 성 정보로 성당 주일 미사 강론
2. 황창연 신부의 살리는 이야기 :  
- 세계는 코로나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DIOCESE OF ARLINGTON**

1974-2024

**알링턴 교구 설정 50주년**

알링턴 교구는 2024년 교구 설정 50주년 희년을 준비하며 신앙의 기본 진리에 대한 영적, 지적 쇄신을 향하여 3년 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Year One** (2021.11.21 시작) **"Remember"**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구의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합니다.

<https://www.arlingtondiocese.org/jubileehome/>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0 AM</li> <li>• 10:00 AM(교중미사)</li> <li>• 2:00 PM(학생미사)</li> <li>• 5:00 PM(청년미사)</li> </ul>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